

발행인: 노용균
편집인: 조세연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06년 4월 16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 길 1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조세연 교수 연구실내
전화: (033) 250-8145
e-mail: sycho@kangwon.ac.kr

1.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정소우 교수 (swchung@cc.sungshin.ac.kr)
-------	--

논문게재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거나, 원고제출에 관해 논의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정소우 교수님께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들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심사료: 3만원 (신설)

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 전임 50,000원, 비전임 20,000원,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전임/비전임 150,000원

LaTeX 조판비: 20,000원

2.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2006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는 250,000원입니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계좌번호 012336-01-001683, 우체국)

3. 알림

◆ 다시 한번 공지 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2006년 정기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6년 6월 16일~17일 (1박 2일)
2. 장소: 강원대학교 인문관 206호실 및 춘천 수렴원 컨퍼런스 룸 (예정)

3. 주제: 초점의 형식과 의미
4. 프로그램위원장: 홍민표 교수 (명지대학교)
5. 대회조직위원장: 조세연 교수 (강원대학교)
6. camera-ready 논문제출 마감일: 2006년 5월 29일

◆ 2006년 학술대회를 위한 발표예정논문 초록은 주제와 관련된 것은 물론 일반 논문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위원장이신 홍민표 교수 (명지대, mphong@mju.ac.kr)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기 학술대회를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진행표는 곧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언어정보학회의 월례논문 발표회

◆ 2006년도 전반기에 한국언어정보학회에서는 학기별 월례회와 더불어 특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강으로 Focus와 관련있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 4월의 특강 발표세션에서는 Focus 심화편으로 오전부터 전영철 (서울대) 교수와 홍민표 (명지대) 교수께서 특강을 이끌어 주시고, 아래에 첨부한 바와 같이 채희락(한국외대) 교수님과 신호필 (서울대) 교수님의 발표와 더불어 노은주 (인하대) 교수께서도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례회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총무 조세연 교수 (sycho@kangwon.ac.kr)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6년 4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등위접속과 시제 표지

채희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발표의 목적은 한국어 시제 표지 ‘-았/었-’의 형태-통사적 지위를 밝히고 ‘-고’ “등위문”에서의 시제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휘적 접근법에서는 시제 표지를 단어 내부 요소인 굴절접사로 보고 있지만, 통사적 접근법에서는 음운론적으로는 의존적이지만 통사적으로는 독립적인

“접어”로 보고 있다. 영어와 같이 머리어인 동사가 보충어 앞에 나오는 언어에서는 시제 표지 ‘-ed’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동사의 굴절접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이 동사가 보충어 뒤에 나오는 언어에서는 시제 표지가 동사와 결합하는 굴절접사인지 동사구와 결합하는 접어인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발표에서 우리는 한국어 시제 표지는 순수한 굴절접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제 표지의 지위 판별과 시제 관련 현상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는 ‘정희는 춤을 추고 영수는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시제 표지가 뒷 절에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런 등위문에서조차 뒷 절에만 나타나는 시제가 앞 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런 문장의 앞 절은 등위절과 종속절로 중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할 한다. 그러나 왜 그런 중의성이 생기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말의 현재 시제 표지는 (‘-ㄴ/는’이 아니라) ‘-∅’이며 접속사 ‘-고’도 등위접속 기능과 종속접속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위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전자는 보이지 않는 현재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정형 절(finite clauses)”이며 후자는 시제 표지가 없는 “비정형 절(non-finite clauses)”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지 증거는 전형적으로 종속접속의 기능을 하는 ‘-고’는 시제 표지가 없는 동사 형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 ‘정희는 동생을 업-고/*업었-고 달렸다’). 위 문장에서 앞 절이 등위절일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가진 현재의 사건을 나타내며 종속절일 경우에는 시제 표지가 없으며 관련 사건의 시간은 뒤의 주절에 의해 과거로 결정된다. 우리의 분석이 옳다면, 등위문의 등위절은 모두 각자의 시제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 절의 시제 표지가 앞 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우리 분석에서는 시제 표지가 등위구문 전체와 결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접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제 표지를 굴절접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Chae, Hee-Rahk and Yongkyoon No (1998) "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 Focusing on Syntactically Relevant Phenomena," *Korean Linguistics* 9, 65-109.

Cho, Sae-Youn (2005) "Non-tensed VP Coordination in Korean: Structure and Meaning," *Language and Information* 9.1, 35-49.

한국어 연어 구성의 통계적 접근

신효필(서울대학교)

단어들의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 또는 공기관계(co-occurrence) 측면에서 인접 단어들 사이에 의미적으로 결합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연어 구성(collocation)이 최근 이론 언어학 및 전산 언어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어는 단어들의 결합이 자유로운 구성이나 아니면 관용 표현과 같이 의미의 합성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산 언어학이나 코퍼스 언어학에서는 대량의 자료에서 특정 단어들의 결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합 관계가 밀접한 구성들을 연어로 규정한다. 통계적 접근 방법에서의 두 단어의 긴밀한 결합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출현 빈도에 따른다. 즉 공기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그 표현은 연어 구성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이와는 달리 연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어휘적 밀접성 내지 의존성, 분포의 제약성, 선택의 방향성, 연어핵 의미의 투명성 등에 따라 그 내적 의미 관계를 규명하려 한다. 또한 이론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연어는 코퍼스에서 실제 출현 빈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구성은 이론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어 구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본 논의에서는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어 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출발로 하여 통계적으로 연어 구성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여기서 통계적 연어 구성의 접근이란 기존의 연어 구성을 위한 여러 통계 기법 중 가장 적절한 통계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규정되는 연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연어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으로 규정된 연어가 과연 통계적으로 실제 연어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있는 분포를 보이는지 하는 소극적 측면의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이론적 고려도 없이 통계값에 의해 연어 구성을 규정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 각각의 방법은 분석 대상을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며 실제로 분석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본 논의에서는 이론적으로 연어 구성을 규정할 때 나타나는 불명확함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On bare plural interpretations: Existential readings vs. General readings

Eun-Ju Noh, Inha University

Bare plurals (henceforth BPs) are claimed to be ambiguous between generic and existential readings:

- (1) a. Boys are noisy.
- b. Boys are present.

In previous accounts, *boys* in (1a) is interpreted as generic, and *boys* in (1b) as existential, which are paraphrased as *boys in general* and *some boys*, respectively.

Issues of BP interpretations have concentrated on what determines the interpretation of BPs. The type of predicate, the degree of localization, specificity, and the topic/focus structure, among others, have been claimed as the determining factors (e.g. Carlson 1977; Kiss 1998; McNally 1998; Cohen and Erteschik-Shir 2002.). All these accounts assume that a BP is ambiguous between generic and existential readings. I call these accounts semantic approaches in that they deal with a variety of BP interpretations as the meanings of the BP.

I argue that BPs do not mean the existential reading. The so-called existential BPs mean the same kind of reading as the characterizing generic reading, the difference being in the relevant domain, or in the degree of narrowing down, which is pragmatically determined. Consider (2) – (3), from Glasbey (1998):

- (2) a. *Students* own sports cars.
- b. *Monkeys* live in trees.
- (3) a. *Students* own sports cars in this department.
- b. *Monkeys* live in trees in this zoo.

According to her, the italicised BPs in (2) are interpreted generically, while those in (3) are interpreted existenti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called existential BPs and explicit existentials can be seen in (4). If BPs meant the existential reading, they would be allowed in the same sentence. However, they are not:

- (4) A: How was the conference?
- B: a. So so. Some investors are interested, some investors are not, and some investors are in the middle.
- b. So so. ?Investors are interested, investors are not, and investors are in the middle.

I explore BP interpret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relevance theory. In relevance theory, the encoded meaning is just part of the explicitly communicated meaning. In order to get the explicitly communicated meaning (the explicature or what is said), the utterance undergoes the processes of disambiguation and reference assignment, as Grice (1975) claims, and also processes of recovery of the ellipsed material and pragmatic enrichment. I claim that BPs are also pragmatically enriched (mostly narrowed down), and the process are constrained by considerations of optimal relevance.

The pragmatic narrowing down of the concept or domain can be illustrated by the examples in (5):

(5) I want to meet some *bachelors*.

According to Carston (2005), the encoded concept BACHELOR is the set of unmarried adult males, whereas the relevant concept in (6) is narrower than the encoded concept, namely, *bachelor eligible for marriage*.

한국언어정보학회 2006학년도 1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일사: 토요일 9:00-12:30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3월25일 (토)	특강 I 9:00-10:20	위혜경(한국사이 버대) 이예식(경북대)	Focus 기초	윤재학 (경희대)
	휴식(10분)			
	기획 논문 10:30-11:25	홍수민(부산대)	“Revisiting Resultative Constructions”	
	일반 논문 11:30-12:00 일반 논문 12:00-12:30	이용훈(충남대) 이현우(인하대)	“Functor-Argument Relation in Computational Minimalism” “Polarity and Focus ”	
4월22일 (토)	특강 II 9:00-10:20	전영철(서울대) 홍민표(명지대)	Focus 심화	류병래 (충남대)
	휴식 (10분)			
	기획 논문 10:30-11:25	채희락(한국외대)	“등위접속과 시제표시”	
	일반 논문			

	11:30-12:00 12:00-12:30	신효필(서울대) 노은주(인하대)	한국어 연어 구성의 통계적 접근 “On bare plural interpretations: existential readings vs general readings”	
5월20일 (토)	특강 III 9:00-10:20	염재일(홍익대) 이정민(서울대)	Focus와 Topic	전종섭 (한국 외대)
	휴식(10분)			
	기획논문 10:30-11:25	정찬(동서대) 김종복(경희대)	“A Contructional Approach to Korean Coordination”	
	일반논문 11:30-12:00 12:00-12:30	이혜경(아주대) 최운호(고려대)	TBA	